

축 사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유구한 역사와 맥락을 같이하여 우리민족의 삶과 문화 그 자체였으며, 호국과 민생 안락을 핵심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간절한 마음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보로써 불상과 팔만대장경, 사원건축, 불화 등은 예술문화에 그치지 않는 정신세계의 승화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미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형예술이라는 장르 형식을 통하여 함축적이고도 상징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마음을 정화하는 향기로움을 이루게 하고, 예경·교화·장엄·수행·포교 등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미술작가의 작품은 단지 예술적 기량으로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信心으로 분출된 작가의 예술세계는, 깨달음을 향한 上永菩提이자 중생을 이롭게 하는 下化衆生の 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10여년 전 무형문화재 선정을 기념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가운데 ‘33관음속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사부대중 모두에게 환희를 일깨워주고 불교문화에 크게 이바지한 경력이 말해주듯이, 수행과 예술혼을 불사르는 불모 허길량의 작품세계는 경의를 이끌어 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산을 대표하는 소나무라는 천연 재료와 전통적 조각기법을 구사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목조각의 정수를 보여줌으로써, 불교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허길량 장인의 비천조각세계는 도상적 전통성을 바탕으로 하되 친환경적인 소나무와 접목하였고, 쪼갬목을 쓰지 않고 통나무를 그대로 조각하여 독창적인 예술혼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소나무 비천되다’를 주제로 한 조각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투신 불국토의 천상세계를 환희심으로 친견할 수 있게 된 것은 불자
는 물론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행운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불모 허길량 장인의 정진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목조 33
비천 조각전’을 계기로 새로운 불교문화 예술의 창출을 기대하면서 부
처님의 佛恩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1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